

주거권

쪽방촌과 사람답게 살 권리

2023. 10. 5.(목) 9:00-11:30

주관: 광주사회혁신가네트워크, 광주다시서기지원센터

배경

“모든 사람이 적절한 주거를 향유할 권리”, “인간의 존엄성에 적합한 주택 조건을 향유할 권리”, “주거에 관한 국민 생활 최저선의 확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주거권은 모든 사람이 적절한 주거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말한다. 하지만 6㎡ 전후의 작은방으로 이루어진 쪽방촌은 전국 5대 도시, 10곳에 8,768개의 쪽방이 있고, 5,212명이 거주하고 있다.

대부분의 쪽방촌은 좁은 면적에 비해 높은 월세를 부담하고 있지만 관리가 되지 않아서 안전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잠자는 공간을 빼면 생활용품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협소하다. 창문이 없거나 건물 간 간격이 좁아 햇볕 잘 들지 않고 습하며, 환기가 되지 않아서 건강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주민들의 몸과 마음 건강 등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인간다운 삶을 확보하기 위해 회의를 기획하게 되었다.

목표

헌법에서 명시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넘어,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집을 만들기 위한 공동체적 움직임을 펼쳐가는 수도권 쪽방의 사례를 공유하고 국가와 자본으로부터 공공 주택 사업 제도의 방향을 검토하며, 광주광역시 동구지역에 형성된 쪽방촌 문제와 현황을 함께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를 통해서 수단, 역할분담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며 이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광주의 주민들의 주거복지 모델을 찾도록 한다.



중점 논의사항

1. 도시빈민(쪽방촌)의 역사와 현실
2. 쪽방촌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공공 주택의 대안
3. 광주광역시 동구 쪽방촌 관련 조사 및 연구
4. 광주광역시 쪽방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과 정책

